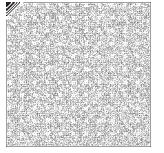


시온 주보

제2274호 2020년 3월 1일(가해)

사순 제1주일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변환용 바코드



발행  천주교 서울대교구 | 발행인 염수정 | 편집 문화홍보국 주보편집팀 | 인쇄 가톨릭출판사
전화 02)727-2114 | 이메일 jubo@seoul.catholic.kr | 홈페이지 http://cc.catholic.or.kr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길 74 천주교 서울대교구청 7층 문화홍보국



창4동성당 | 2012년 2월 설립

입당 송 | 시편 91(90), 15, 16

나를 부르면 나 그에게 대답하고, 그를 해방시켜 영예롭게 하리라. 오래오래 살도록 그에게 복을 내리리라.

제1독서 | 창세 2, 7-9; 3, 1-7

화답 송 | 시편 51(50), 3-4, 5-6, 12-13, 14와 17(◎ 3번 참조)

◎ 주님, 당신께 죄를 지었사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기소서.

○ 하느님, 당신 자애로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당신의 크신 자비로 저의 죄악을 없애 주소서. 제 허물을 말끔히 씻어 주시고, 제 잘못을 깨끗이 지워 주소서. ◎

○ 제 죄악을 제가 알고 있사오며, 제 잘못이 언제나 제 앞에 있나이다. 당신께, 오로지 당신께 잘못을 저지르고, 당신 눈앞에서 악한 짓을 하였나이다. ◎

○ 하느님, 제 마음을 깨끗이 만드시고, 제 안에 굳건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당신 앞에서 저를 내치지 마시고, 당신의 거룩한 영을 제게서 거두지 마소서. ◎

○ 구원의 기쁨을 제게 돌려주시고, 순종의 영으로 저를 받쳐 주소서. 주님, 제 입술을 열어 주소서. 제 입이 당신을 찬양하오리다. ◎

제2독서 | 로마 5, 12-19 <또는 5, 12, 17-19>

복음환호송 | 마태 4, 4

◎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

복 음 | 마태 4, 1-11

영성체송 | 마태 4, 4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정순택 베드로 주교 | 서울대교구 보좌주교

| 사순 시기를 시작하며

한 해의 전례력은 ‘구세주의 탄생’과 그분의 ‘수난과 부활’이라는 구세사의 가장 정점을 이루는 두 사건을 축으로 성탄 시기와 부활 시기가 중심에 자리하고, 그 시기를 잘 준비하기 위한 대림 시기와 사순 시기가 각각의 시기 앞에 배치되어 있으며, 나머지 일상의 연중 시기로 구성됩니다. 전례력은 그냥 매년 반복되는 교회 달력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으로 낳으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불러들이고자 하시는 ‘하느님 사랑의 구체적 표현 통로’입니다. 그 안에는 설혹 우리가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기를 멈추지 않으시는 하느님의 질긴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전례 시기를 통과하면서 다양하게 표현되는 우리를 향한 하느님의 한없는 사랑을 만나도록 교회는 우리를 초대합니다.

지난 재의 수요일, 이마에 재를 바르며 ‘사람아, 너는 먼지이니, 먼지로 돌아갈 것을 생각하여라.’(창세 3,19 참조)는 말씀을 들으며 사순 시기를 시작하였습니다.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현세의 직접적인 감각 세계 안에 매몰되어 있는 우리에게, 잊고 있던 이승 삶의 시작과 마침 지점이 어디인지를 다시금 생각하게 해 줍니다. 전례력으로 사순 시기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주신 예수님의 부활을 잘 준비하기 위해, 우리의 죄를 뉘우치고 희생과 보속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잡아 하느님을 향해 삶의 방향을 다시 정위시키는 은총의 시간입니다. 더 나아가 사순 시기는 보속의 시간만이 아니라, 우리 삶과 세상 안에 피치 못하게 존재하는 삶의 부정

적인 체험들, 예컨대 죽음, 질병, 고통, 실패, 거부, 좌절 등의 숨은 의미도 다시 생각해 하는 소중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수난과 죽음이 영원한 실패로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부활이라고 하는 궁극적 승리로 가는 과정이었듯이, 우리 삶에 피할 수 없는 여러 모습의 부정적인 체험들도 우리를 ‘실패자’로 남게 하는 불운한 운명의 무게가 아니라, 그 부정적 체험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하시고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그 하느님의 사랑을 새롭게 만나는 숨은 하느님의 초대장임을 묵상하게 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전례에서는 사순 시기를 시작하며, 예수님께서 공생황을 시작하시기에 앞서 40일간 단식하시며 악마의 유혹 앞에 서심으로써 우리 인간과 같은 상황을 우리에게 앞서 겪으신 모습을 들려줍니다. 이는 첫 번째 독서로 들은 창세기의 첫 인간, 아담과 하와가 하느님의 금령을 어기고 불순명으로 죄를 짓는 모습과 대조되어, 하느님 말씀에 순명하여 악마의 유혹을 물리치시고, 훗날 끝내는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순명하시는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시게 될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사순 시기를 시작하며 우리도, 먼지에서 난 우리네 삶 – 하느님이 사랑으로 우리를 존재로 불러주지 않으셨다면 존재조차 없었을 우리네 삶이 궁극적으로 돌아갈 지점을 묵상해 보며,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갖가지 고통과 시련 속에 감추어져 있는 하느님 사랑의 손길을 만나는 시간이 되어 봅시다.



창4동성당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13길 192

오금성요셉성당 창4동성당 세곡동성당



창4동성당은 2012년 2월 창5동성당을 모본당으로 창4동 전지역과 방학동 일부를 창5동성당에서 분리해 설립했습니다. 2009년 8월 신축 성전 토지를 매입하고, 2011년 5월 기공식을 봉헌했습니다. 2012년 4월 초대 사목회를 구성하여 신자 2,973명의 공동체로 본당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2012년 11월에는 지상 6층, 지하 2층으로 신축된 창4동성당에서 입당 미사를 가졌고, 2013년 6월 성전 봉헌식을 거행했습니다. 주보는 예수마리아요셉의 성가정입니다.

김명중 시몬 신부 | 문화홍보국 차장



하느님과 관계 맺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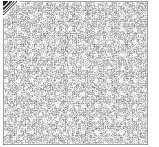
최근 휴대전화기를 새로 바꿨습니다. 원래 쓰던 전화기와 작별하기 전, 필요한 데이터를 옮기기 위해 마지막으로 메신저 앱을 켜 훑어보았죠. 그동안 지인들과 주고받은 수많은 대화들이 그대로 쌓여 있었습니다. 사용한 지 2년 반 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대화창이 그야말로 끝이 보이지 않게 펼쳐졌습니다. 그중에는 지금도 친하게 지내는 친구들과의 소소하고 친밀한 수다도 있었고, 비록 현재는 뜸하지만 이름만으로도 반가운 인물들과의 고맙고 소중한 대화도 있었습니다. 그 목록을 내려보는 것만으로도 추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며, 그 사이 저에게 참 많은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새삼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웠던 건, 스스로 기억조차 나지 않는 이야기들도 참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얼굴도 가물가물한 취재원과 형식적인 안부 메시지라든가, 예의상 대충 대꾸하고 넘어간 시답잖은 농담이라든가, 단순 업무 목적으로 챙겼던 각종 교신들은, 분명 눈앞에 존재하는데도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낯설었습니다. 그러자 여러 가지 묘한 깨달음이 올라왔습니다. 우선, 하루 이틀 애긴 아니지만 '나의 기억력이 이렇게 하찮구나' 하는 자괴감이 먼저 밀려왔고, 어차피 이렇게 인간의 뇌용량이 한정적인 거라면, 기록이 아닌 기억으로 남을 관계에 보다 집중해야겠다는 나름의 각오도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질문도 피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입장을 바꿔서 나는 이들에게 어떤 데이터일까?'

일 년 동안 전혀 소식도 없다가 해가 바뀔 때만 틀에 박힌 신년인사를 건넨다든가, 생일이나 명절에만 불쑥 말을 거는 사람은 아닌지. 바쁘다는 핑계로 짧은 문자나 그림으로만 답변을 대신하는 사람은 아닌지. 더욱 최악인 것은, 혹시나, 꼭 내가 필요할 때만 찾는 사람은 아닌지, 돌아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의 전화번호부에 0번으로 저장돼 있는 하느



안현모 리디아 | 동시통역가



님과 관계 역시 마찬가지로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매일 수십억 인구와 소통하며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서버를 관장하시는 하느님께서 보시기에, 저는 과연 어떤 데이터일까요?

어쩌다 한번 특별한 날에만 접속하는 계정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한동안 접속이 끊긴 휴면계정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정 반대로, 하루도 빠짐없이 '띠링 띠링' 시끄럽게 알림 소리를 울려 대는 단골 계정이지만, 그저 일방적인 민원으로만 가득한 주문 전용 계정인 지도 모릅니다. 물론 무엇이 됐든, 하느님께선 언제나 와이파이를 뱅뱅하게 열어놓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지만, 단순한 응답에서 그치지 않고, 친히 수화기를 들어 먼저 전화를 걸고 싶어 하실 상대는 누구까요? 아마도 일단은 가까이에 있는 사람, 그리고 평소 내 얘기만 하기보다는 상대의 얘기를 할 수 있게끔 공간을 주고 귀담아듣는 사람에게 입을 여실 것 같습니다.

새 전화기에서도 하느님은 여전히 저의 즐겨찾기 맨 첫 줄에 계십니다. 더 자주 연락드리고, 더 기쁘게 해드리려 노력할 겁니다. 무엇보다도, 하느님의 음성엔 안테나를 켜고 귀를 쫓긋 기울이려 합니다. 양방향 소통이 될 수 있도록, 하느님의 전화가 걸려올 수 있도록요.

나를 이끄는
성경구절

나의
말씀

어
젠
내가사는것이아니라
그리스도
께서
내안에
사시는
것
입니다



안은혜 마카렐라
수원교구 매탄동성당



나만의 사순 실천표

교회의 모든 하느님 백성은 재의 수요일을 시작으로 예수님의 수난과 죽음을 묵상하며 회개와 보속의 실천을 통해 주님의 영광스러운 부활을 준비하는 사순 시기를 보냅니다. 이 시기가 참된 은총의 때가 되기 위해 우리는 무엇보다 전례를 통해 하느님 말씀을 묵상하고 성체성사의 신비 가운데 드러나신 예수님과 하나가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아울러 그리스도와 더욱 깊은 친교를 위해 회개와 보속에 합당한 실천사항들을 정하여 하나씩 실천한다면 더욱 큰 부활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순 시기를 매년 반복되는 행사처럼 여기지 말고, 오히려 지금 이 순간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느님 아버지께서 마련하여 주신 소중한 기회라고 여겨야 합니다. 일생을 살아가며 이번 사순 시기가 신앙의 성숙을 위한 중요한 순간임을 기억하며 열심한 마음으로 주님의 수난을 묵상하고 하느님과 이웃 사랑의 계명을 충실히 지켜나가야 합니다. 이런 마음과 함께 우리 모두 사순 시기를 어떻게 보낼 것인지 구체적으로 생각해보고 오른쪽에 마련한 「나만의 사순 실천표」와 같이 각자의 실천표를 만들어 실천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지금이 바로 매우 은혜로운 때입니다.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입니다.”(2코린 6,2)라고 바오로 사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삶의 모든 것을 올바른 신앙인의 모습으로 변화하려는 노력과 함께 올해의 사순 시기가 우리 모두에게 참된 구원의 때, 은혜로운 시기가 되도록 노력합시다.

사·순·실·천·표		😊	☹
신앙 실천	아침, 저녁 기도 바치기		
	십자가의 길 기도 바치기		
	성삼일 전례 참례하기		
	판공성사 꼭 보기		
	신심서적 읽기		
생활 실천	가족에게 사랑하고 고맙다 말하기		
	불평과 짜증내지 않기		
	뒷담화 하지 않기		
	금주·금연하기		
	TV 시청 시간 줄이기		
	핸드폰 사용 줄이기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꼭 필요한 것만 사기		
사랑 실천	승용차 사용을 줄이기		
	나에게 상처 준 이를 용서하기		
	사순 저금통을 만들어 봉헌하기		
	본당의 봉사활동에 참여하기		
	쉬는 교우를 신앙으로 인도하기		
	교회 내 자선단체에 기부하기		

사목국 기획연구팀

지금은 우리 모두의 정신이 영적 발전을 향해 더 열심히 전진해야 하며 더 깊은 신뢰심으로 활기를 되찾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속량된 그날 이 되돌아와 자비의 모든 행업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리가 모든 성사 중에 가장 큰 신비인 주님 수난의 신비를 깨끗한 몸과 마음으로 경축하기 위해서입니다.

- 레오 대 교황, 「사순 시기 강론집」-



「사랑의 손길」은 '천주교 서울대교구'와 '바보의나눔'이 함께하는 국내외 원조사업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내외 가톨릭 사회복지단체를 후원합니다.

위기이주여성긴급보호쉼터

“ 위기의 이주 여성과
이주 여성 한부모 가족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

위기이주여성긴급보호쉼터는 정부나 지자체 지원 없이 후원금으로 운영하는 외국인 여성과 동반 아동들을 위한 쉼터입니다.

한 달 전에 '키한센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키르기스스탄 국적의 여성과 생후 6개월 된 아이를 쉼터에 보내고자 하는데, 수용 여부를 문의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던 남편은 이주여성의 명의를 도용하여 사업을 하다가 폐업하고 3,300만 원의 세금을 내지 않아 이주여성을 신용불량자와 세금 체납자로 만들어 모든 신용거래 정지와 체류 연장도 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에 항의하자 폭행하고, 집에서 쫓아냈다고 합니다. 당장 6개월 된 아기와 머물 곳이 없어 긴급하게 구호요청을 한 것입니다. 쉼터에 도움을 요청하는 곳은 이곳만은 아닙니다. 다누리 콜센터, 경찰서, 주민센터, 다문화 센터, 외국인 노동자 센터 등에서 입소하고자 의뢰하는 문의 전화가 오지만 장소의 한계와 생활비의 한계로 모두 받아 주기는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들어와 생활하는 입소자들은 자신들이 선택받은 사람인 것 같다고 감사하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임신하여 입소하거나 병원에서 출산 후 갈 곳이 없는 산모에게도 병원비와 아기의 분유와 기저귀 등 영아들에게 필요한 물품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어렵고 부족한 가운데에서도 의식주뿐만 아니라 이주민들의 행정적인 문제, 법률적인 문제, 질병의 문제, 언어의 문제, 아동의 문제, 취업 관련 문제 등 이주민 여성들이 안고



있는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줍니다. 이 쉼터는 여러 기관과 뜻있는 분들의 무상에 가까운 도움과 개인적인 기부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치료비가 많이 드는 치과 진료는 엄두도 내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해 젊은 나이에 치아를 잃고 생활하면서 음식 섭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주여성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기본적인 치료 외에는 도움을 주는 데에 한계가 있어서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고향을 떠나 타국에서 임신과 출산 중에 치아 관리를 받지 못해서 통증이 가장 심한 어금니를 위쪽 모두 발치하고, 다른 치아도 흔들려서 제대로 씹지도 못하고 음식을 먹으면서도 딸을 위해서는 뭐든 해주려는 모습이 더 안쓰럽습니다. 이주여성 대부분이 치과 진료를 제대로 받은 경우가 없어 임신과 출산으로 더욱더 치과 관련 질병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건강의 시작은 영양가 있는 음식을 잘 섭취하는 것부터입니다. 지금과 같은 음식 섭취가 장기간 이어진다면 더 큰 건강상의 문제들이 발생할 것입니다. 이들에게 빠른 치료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이주여성 한 부모 가정의 아이들에게는 엄마가 세상의 모든 것입니다.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은 대한민국의 자녀들이고 태극기를 사랑하고 안중근 의사와 유관순 열사 등 독립투사들을 존경하는 이 땅의 미래 기둥들입니다. 이 아이들에게 세상 전부와도 같은 엄마들이 건강하게 자녀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따뜻한 관심과 도움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후원계좌 | 우리은행 1005-803-271075 (재)바보의나눔

2020년 2월29일~4월3일까지 위의 계좌로 후원해 주시는 후원금은 '위기이주여성긴급보호쉼터'를 위해 쓰여집니다.

서울대교구 문화홍보국 홈페이지(cc.catholic.or.kr)에서 지난 사연 및 후기를 볼 수 있습니다. 기부는 소득공제 받으시는 분의 이름으로 입금해 주시기 바라며, 기부내역 누락 방지를 위해 무통장입금 후 바로 기부금 영수증을 신청해 주세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여러분에게 빚니다. 하느님과 화해하십시오.”(2코린 5,20)

올해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으로 예수님 죽음과 부활의 위대한 신비를 경축하고자 준비하는 은혜로운 시간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 신비는 우리 그리스도인 생활의 주축을 이룹니다.

1. 회개의 근본인 파스카 신비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예수님 죽음과 부활에 대한 기쁜 소식, 곧 복음 선포(Kerygma)에 귀 기울이고 이를 받아들이는 데에서 솟아납니다. 이번 2020년 사순 시기를 맞이하여 저는, 젊은 이들에게 보낸 저의 권고 「그리스도는 살아 계십니다」(Christus Vivit)의 한 구절을 모든 그리스도인과 나누고자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활짝 벌린 두 팔에 여러분의 시신을 고정시키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계속해서 다시 여러분 자신을 구원하시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죄를 고백하려 할 때에, 여러분을 죄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그리스도의 자비를 굳게 믿으십시오. 그와 같은 위대한 사랑으로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에 대하여 묵상하고 그 피로 깨끗해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다시 새롭게 태어날 것입니다.”(「그리스도는 살아 계십니다」, 123항) 예수님의 파스카는 이미 지난 과거 사건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파스카는 성령의 권능으로 언제나 현재가 되어, 고통받는 이들 가운데에 계시는 예수님의 몸을 우리가 믿음으로 알아보고 만져볼 수 있게 해 줍니다.

2. 회개의 시급성

파스카 신비의 은총으로 우리는 하느님 자비를 입었습니다. 참으로 하느님 자비의 체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당신 자신을 바쳐”(갈라 2,20)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주님과 ‘얼굴을 마주 대하는’ 관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분과의 대화는 벗끼리 나누는 허심탄회한 대화입니다. 그러하기에 사순 시기에 기도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기도는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지만, 하느님 보시기에 진정 중요한 것은 우리 속을 꿰뚫고 무디어진 우리 마음을 다듬어 주어, 우

리가 더더욱 하느님께 그리고 하느님 뜻으로 돌아서게 해 주는 기도입니다. 이 은혜로운 시기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셨듯이(호세 2,16 참조) 우리를 이끌어 주시도록 자신을 내어 맡깁시다. 그러면 마침내 우리는 우리 신랑이신 그분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고, 그분 목소리가 우리 안에 더욱 깊이 더욱 기꺼이 되올려 퍼지게 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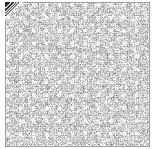
3. 당신 자녀들과의 대화를 열렬히 바라시는 하느님의 뜻

교회와 세상의 삶과 마찬가지로 우리네 삶 속에는 이따금 비극적으로 악이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우리 삶의 행로를 바꿀 수 있도록 주어지는 이러한 기회는, 끊임없이 우리와 구원의 대화를 나누고자 하시는 하느님의 강한 뜻을 드러내 줍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께서서는 죄를 모르셨지만,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신 분이십니다(2코린 5,21 참조). 예수님을 통하여 드러나는 성부의 이 구원 의지에 따라, 성자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기까지 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서는 당신 아드님의 파스카 신비를 통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대화를 나누고자 하십니다.

4. 혼자만 간직할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어야 하는 부(富)

파스카 신비를 우리 삶의 중심에 놓는다는 것은, 이 세상의 수많은 무고한 희생자들 안에 아로새겨진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상처에 대하여 우리도 같은 아픔을 느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날에도 선의의 사람들에게 희사(喜捨)를 통하여 그들의 재산을 가장 궁핍한 사람들과 함께 나누도록 일깨워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희사는 더 공정한 세상을 이룩해 나가는 데에 개인이 참여하는 하나의 수단입니다. 자선의 나눔은 인간을 더욱 인간답게 해 줍니다. 성모님의 전구를 통하여, 사순 시기를 거행하는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하느님의 부르심을 들어 하느님과 화해하고, 우리 마음의 눈을 파스카 신비에 고정시키며, 회개하여 하느님과 진솔한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황 프란치스코



2020년 교구장 사순 메시지

“너는 먼지이니 먼지로 돌아가리라.” (창세 3,19)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또한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싸우는 의료진에게 인내와 용기를 주시고 환자들이 하루빨리 치유되어 일상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 특별한 은총을 청합니다.

인류 구원의 신비를 묵상하고 부활 축제를 기쁨으로 맞이하기 위해 준비하는 사순 시기입니다. 사순 시기의 시작인 재의 수요일에 우리는 머리를 숙여 재를 받으며 “사람아, 너는 먼지이니, 먼지로 돌아갈 것을 생각하여라”는 말씀을 묵상합니다. 이는 단순히 인생의 허망과 무상함을 강조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현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지금의 삶은 하느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삶을 위해 준비하는 과정임을 깊이 깨달으라는 말씀입니다. 사순 시기 동안 하느님의 뜻을 깊이 묵상하고 회개하고 그분께 깊이 의탁할수록 예수님 부활의 영광에 더 가까이 참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그저 지난 잘못을 뉘우치는 것만이 아니라, 삶의 중심을 하느님을 향해 완전히 전환하는 것입니다. 후회는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두지만, 회개는 자기를 버리고 하느님의 뜻을 찾습니다.

“네 아우 아벨은 어디 있느냐?(창세 4,9)” 죄에 휩싸여 동생을 죽인 카인에게 하느님은 가만히 물으십니다. 카인의 모든 잘못을 다 알고 계신 주님께서는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하느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네 이웃은 어디에 있느냐? 너의 삶의 중심은 어디에 있느냐?” 피하고 싶은 이 질문에 우리는 솔직하게 끊임없이 대답해야 합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약하

고 힘들고, 가난하고 박해받는 사람을 지나치지 않고 그들을 돌보고 치유해 주어야 합니다. 무관심의 유혹을 넘어,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연민을 가지고, 그들과 시선을 맞춰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은총을 넘치게 받았으니, 우리도 이웃에게 그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저는 2020년 사목교서를 통해 ‘복음의 기쁨을 선포하는 본당 공동체’를 만드는 데 힘을 모으자고 당부드렸습니다.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를 체험하고 그 빛을 따르는 이들이라면,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지 않고는 견디기 어려울 것입니다. 하느님 나라는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기 때문입니다.(마태 13,44 참조).

세례 받은 우리는 복음 선포의 중대한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번 사순 시기를 통해 신앙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특히 각자가 속한 본당 안에서 복음 선포의 사명을 배우고 시작하며 성장시켜나갑시다. 신앙의 공동체가 하나되어 희생하고, 힘을 모아 노력할 때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주님 부활의 큰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은혜로운 사순 시기에 하느님의 말씀을 신앙의 나침반으로 삼고,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분께로 한걸음 더 나아갑시다.

천주교 서울대교구장
염수정 추기경

염수정

천주교 서울대교구 묘원 한식 성묘 안내

1) 용인추모공원 한식 성묘 안내 / 미사: 4월5일(일)

성묘 승차권을 묘지관리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리 전화예약(02)727-2225 후 송금하셔야 자리배정이 가능합니다. 관리비가 미납되신 분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비 장기 미납시에는 무연고 처리됩니다.

식사 및 성묘 개별준비

오전 9시	명동 출발	10분 전 승차요망(교구청 앞)
오전 10시	미사 예정	용인묘원 경당(김수환추기경 기념 경당) 명동 출발차량 도착시간에 따라 변동 가능
오후 2시	용인 출발	10분 전 승차요망

성묘객 중 자가용 이용자 명동대성당 주차 불가

승차권 예매: 3월2일(월)~31일(화)

선착순 자리배정(1매 1만2천원-조기마감 가능)

계좌번호: 우리은행 454-003267-13-159 (재)천주교서울대교구

문의: 02)727-2225 묘지관리과, 031)334-0807 용인묘원

2) 천주교 비봉추모관 한식 성묘 안내

미사: 4월5일(일) 오전 11시, 비봉추모관 명례방 / 식사 및 성묘 개별준비

승차권 예매: 명동 출발(신청: 02)727-2225 / 도림동 출발(신청: 02)833-9439

미사관련 문의: 031)355-0191 비봉추모관 관리사무소

한반도 평화를 위한 밤 9시 주모경 바치기 운동

2020년은 한국전쟁 발발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2020년 11월28일까지 '한반도 평화를 위한 밤 9시 주모경 바치기'에 동참해 주십시오(한반도 평화를 위한 지속적인 기도과 미사 봉헌에 대한 주교회의 2019년 추계 정기총회 결정 2019.10.17).

이번 주 기억할 선종 사제

- 1913년 3월6일 홍병철 루가 신부(39세)
- 1954년 3월5일 김인상 야고보 신부(61세)
- 1975년 3월5일 황정수 요셉 신부(85세)
- 2016년 3월7일 김병일 요셉 신부(82세)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협조 요청

손 씻기, 마스크 착용, 기침 예절 등 위생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미사 외의 교육과 모임을 최소화하시고 공동사용 물품(성가책, 기도서 등)의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사목자들은 이러한 분위기로 신자들의 신앙생활이 위축되지 않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구청알림

갤러리1898 휴관안내 / 문의: 02)727-2336

전시가 취소되었음을 알립니다

한국교회사연구소 2020년 봄학기 공개대학

주제: '하느님의 종' 근 · 현대 신앙의 증인의 삶과 순교

때: 3월12일~5월28일 매주(목) 오후 7시~8시30분

회비: 회원 6만원, 비회원 8만원(선착순 50명)

문의: 02)756-1691(내선 1번)

순교자현양 신심미사 및 하루일정 전국성지순례

1) 순교자현양 신심미사

때: 매일 첫째(주) 3월3일 · 4월7일 오전 10시

곳: 절두산 순교성지

2) 하루일정 전국성지순례

때: 3월15일(일) · 21일(토) · 24일(화) 오전 8시 출발

(전철 2호선 사당역 1번 출구 100미터 공영주차장 집결)

곳: 주여사터, 여주순교터, 여주성당, 여주양심순교터

회비: 4만원(중식, 교통비, 유인물)

문의(신청): 홈페이지(www.martyrs.or.kr) 접수

3월2일(월) 오전 9시부터 접수(선착순)

네이버 검색창 '순교자현양위원회' 검색

홈페이지 접속-우측 신청하기 - 전국성지순례 선택

3) 성지순례 회비 인상 안내

서울(도보, 버스) 및 전국 성지순례 신청 회비 2020년부터

인상 / 자세한 사항 홈페이지 참조(www.martyrs.or.kr)

네이버 검색창 '순교자현양위원회' 검색

3월 생명을 위한 월례미사 취소 알림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 확산에 따라 3월 생명 월례미사가 취소되었음을 알립니다

문의: 02)727-2353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사회교정사목위원회 3월 후원회원 월례미사

사회교정사목위원회 3월 후원회원 월례미사는 없습니다

3월2일 11시 교정사목센터에서 정기총회가 있습니다

정회원과 후원회원분들의 관심과 참석 부탁드립니다

문의: 02)921-5093

낙태 상처 치유 프로그램 및 미사

대상: 낙태의 상처로 고통 받는 분들

때: 3월10일(화) 13시30분~16시30분

곳: 교구청별관 6층 소성당(회비 없음)

문의: 02)727-2070 사목국 교육지원팀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미사(내 마음의 복讎 분당 갖기 미사)

때, 곳: 3월3일(화) 19시, 명동대성당 / 문의: 727-2420

이번 주 기억할 분당: 덕원자치수도원구 덕원 분당 ·

고원 분당 / 미사 후에는 한반도 평화와 복讎분당을

위한 묵주기도를 봉헌합니다(미사 중 예정된 설립 25주

년 행사는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취소합니다)

가톨릭학생회(KYCS-Cell) 회원 모집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은 신앙

입니다 자녀가 성숙한 신앙인으로 성장하길 원하

신다면 가톨릭학생회로 인도해 주세요

대상: 가톨릭 신자 학생(중1~고2)

곳: 가톨릭 청소년회관(혜화동)

활동: 정기 학생 모임 및 제반 활동 등 / 문의: 02)742-4151 서울대교구 청소년국 중등학교사목부

2020년 명동대성당 사순 특강은 없습니다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 차원에서 2020년 명동 대성당 사순특강은 없습니다 / 문의: 02)774-1784

가톨릭스카우트 지도자 및 대원 모집

한국스카우트 · 걸스카우트 가톨릭연맹 서울지구연합회

대원: 서울대교구 본당 주일학교 학생(6세~18세)

지도자: 서울대교구에 교적을 둔 성인

유의사항: 본당 사제 허가 필수(지도자는 면담 필요)

문의: 02)762-0641(seoulscout@catholic.or.kr)

제136기 '나눔의묵상회' 피정 안내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에서는 1986년 김수환 추기경님께서 만드신, 나눔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묵상하는 '나눔의묵상회' 피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우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대상: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 / 회비: 13만원

때, 곳: 3월20일(금)~22일(일), 성 베네딕도 서울수도원 피정의 집(장충동) / 문의: 02)727-2547

성소후원회 월례미사 및 예비신학생 3월 모임

1) 성소후원회 월례미사(새시제 집전)

때, 곳: 3월6일(금) 14시, 명동대성당 / 문의: 02)727-2123

2) 서울대교구 예비신학생 3월 모임

학년	때	곳	문의
중1	3월30일(일) 오전9시	성신교정 대성당	010-9961-2123
중2			010-9972-2123
중3			010-2742-2123
고1	3월15일(일) 오전9시	성신교정 대성당	010-9954-2123
고2			010-2577-2123
고3			
일반			

인준단체 알림

모임

이문동성당 성령기도회 / 문의: 010-5689-4497
 때, 곳: 3월3일(화) 19시 미사 후 소성전 / 강사: 이상기

평신도를 위한 침묵 피정(한국 CLC)
 “너희는 따로 외딴 곳으로 가서 좀 쉬어라”
 자연에서 침묵하며 나와 함께하시는 하느님 만나기
 때: 4월3일(금)~5일(일) 2박3일
 곳: 스승예수 피정의 집(여주군 강천면)
 3월26일까지 접수 / 문의: 02)333-9898 (월~금)

돌아보며 깨닫기
 문의: 010-3173-2665 최영민 신부(예수회)

흔인 성소찾기 피정	접수: 다음카페 'oh oh my half'
돌개생활 피정	접수: 다음카페 '돌개생활피정'

3545피정 · 2박3일 침묵 피정 / 문의: 010-9608-0208
 곳: 예수수도회 메리워드 교육관(주최)

35~45세를 위한 피정	3월13일(금)~15일(일) / 미혼 남녀
2박3일 피정	3월20일(금)~22일(일) / 1:1 개인지도

렉시오 디비나와 예수기도 피정
 곳: 양주 올리베타노 성 베네딕도 수도원(주최, 양주시)
 회비 없음 / 010-5230-2986(cafe.naver.com/monteoliveto)

렉시오 디비나	3월10일(화), 3월24일(화) 14시~17시
예수기도	3월17일(화) 14시~17시

미혼 직장 여성 피정(삼성산 성령 수녀회)
 곳: 삼성산 성령 수녀원 / 대상: 미혼 여성(40세 이하)
 문의: 010-3551-5877(사전 전화 접수 요망)

개인 피정	수시 접수	성경통독	수시 접수
기도모임		첫째주(일) 오후 2시	

가르멜센터
 카카오톡 '가르멜영성문화센터' 채널 추가
 문의: 010-4149-1853(carmelcenter.kr) 가르멜 수도회

청년 피정	매월 첫번째(토) 3월7일 11시~18시 / 문자 접수
성시간	매월 마지막주(수) 3월25일 13시30분~16시30분
문화강좌	숲해설·초공예 초급·서예반 수시 모집

제주 면형의 집 피정(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수도회 수사들과 함께 제주성지·역사·평화순례·미사(성무일도), 나눔, 올레길·오름 트레킹
 아래 일정은 왕복항공예약 포함하여 접수 가능
 문의(접수): 02)773-1463, 064)756-6009

자연순례 피정	3월27일~29일, 4월24일~26일
제주성지 순례	3월14일~17일, 3월19일~22일, 4월2일~5일, 4월13일~16일, 5월2일~5일, 5월9일~12일
제주 성모의 밤·성지순례	5월20일~23일

구산성지 신앙선조 순교영성 / 문의: 031)792-8540
 곳: 구산성지 / 지도: 정 바오로 신부(수원교회사연구소장)

영성 피정	성경직해(신앙선조 성경) 강의·묵상·미사
첫째주(토)	3월7일 14시~18시 / 회비 없음
기도회	우리 신앙선조들의 기도와 미사
셋째주(토)	성가기도: 고영민(찬양선교사) 3월21일 14시~18시

13관악지구 성령봉사회 낮피정 / 문의: 010-5049-1068
 때, 곳: 3월3일(화) 13시~17시, 중앙동성당 / 강사: 이상기

상도동성당 은혜의 낮피정
 때: 3월5일(목) 13시~16시 / 문의: 010-3899-3282
 곳: 전철 7호선 상도역 3번 출구 / 강사: 배형진 신부

삼성산 피정의 집 무료 대피정
 때, 곳: 3월13일(금) 18시~15일(일) 15시, 삼성산 피정의 집 대강당 / 문의: 02)874-6346, 010-8362-9857

18양천지구 성령쇄신봉사회 내적치유 피정
 강사: 남상근 신부 / 문의: 010-7161-4219
 때, 곳: 3월2일(월) 13시~16시30분, 양천성당

예수고난봉쇄수녀회 성소 피정 / 문의: 043)295-5940
 때, 곳: 3월21일 15시~22일 14시, 예수고난봉쇄수녀회(청주) / 이메일: cpnnskorea@catholic.or.kr

성경통독 모임 시즌3(시편)
 대상: 34세 미만 미혼 여성 / 문의: 010-6561-8835
 때: 3월12일~7월2일 매주(목) 19시30분
 곳: 그리스도의 교육 수녀원(주최, 정동) 센터

글라셋선교수도회 월례 소피정
 내용: 영성강의, 식사, 묵상, 고해성사, 미사 / 회비 없음
 때, 곳: 3월8일(일) 11시~15시, 글라셋선교수도회 본원(성북동) / 문의: 02)743-7026, 010-2625-8111

삼성산 사랑의 성령봉사회 철야기도
 때, 곳: 매주(화) 22시20분~다음날 4시, 삼성산 피정의 집 대강당 / 강론: 유명 강사(매주 바뀜)
 문의: 02)874-6346, 010-8362-9857

젊은이 성체조배의 밤(사랑이 피는 기도모임)
 내용: 고해성사, 미사, 성체조배 / 대상: 20세~39세
 때, 곳: 3월7일(토) 오후 6시 미사, 가톨릭회관 1층 경당 / 문의: 02)6253-3373, 010-8360-3700

콜롬반 평신도 선교사(해외선교) 관심자 모임
 대상: 24세~40세 남녀 / 문의: 010-3817-0567
 때, 곳: 3월8일(일) 14시~17시, 평신도선교사센터(전철 4호선 성신여대입구역 1번 출구) / www.columban.or.kr

제주 성 이시돌 자연 순례 피정 / 문의: 064)796-9181
 올레, 미사, 기도, 강의 / 대상: 개인, 가족, 본당 단체 등
 때: 3월11일~13일, 3월17일~19일, 3월23일~26일, 3월29일~31일, 4월2일~4일, 4월13일~15일

말씀기도회(도미니코 수도회)
 말씀과 일상 그리고 전례 속에 숨어계신 주님을 만나는 시간
 때: 매주(월) 18시~20시30분 / 묵주·미사·성시간
 곳: 도미니코 수도원(강북구 삼양로 139나길 16-8)
 회비 없음 / 문의: 010-9916-5798 노경덕 신부

교육

성물조각 · 영성가구 제작 수강생 모집(가톨릭목공예)
 카페(cafe.naver.com/cmc04) 참조 / 문의: 010-5234-5044

캘리그래피 수강생 모집(가톨릭글씨문화연구회)
 곳: 가톨릭회관 3층 333호 / 대상: 글씨에 관심이 있는 분
 블로그: pc21s.blog.me / 문의: 010-5313-6554(문자)

가톨릭 다도회 불학기 회원 모집
 때: 3월9일~6월1일 매주(월) 14시~16시
 곳: 교육장(인사동) / 내용: 다도와 인성 예절 교육
 문의: 010-6618-1313, 010-3226-6078

복자수도회 교우영성학교

3월 강사: 최현식, 류지인 신부
 회비: 1만5천원 / 문의: 02)744-4702
 때, 곳: 매월 셋째주(토) 3월21일 10시~16시(강의와 미사), 복자수도회 복자회관(성북동) / 중식 제공

도림동성당 사순 특강

주제: 건강한 신앙생활 I, 건강한 신앙생활 II
 강사: 홍성남 신부(가톨릭 영성심리상담소 소장)
 때: 1차 3월8일(일) 13시, 2차 3월15일(일) 13시
 곳: 도림동성당 대성전 / 문의: 02)833-9439

돈보스코 직업전문학교 학생 모집

내용: 기계가공, CAD·CAM, 인성교육
 때: 3월~12월 / 대상: 15세~30세 남자
 혜택: 교육비 전액 무료, 수당 지급
 취업(최근 5년 평균취업률 93.3%) / 문의: 02)828-3600

미국 가톨릭 사립학교 정규입학 설명회

대상: 초5~고1 / 현지 학교 관계자 참석
 때: 3월14일(토) 오전 10시30분 / 예약 필수
 문의: 02)2258-8983(oakinternational.co.kr) 그리스도의 레지오 수도회 운영 학교법인

가톨릭대학교 평생교육원(성심) 불학기 모집

가톨릭전례꽃꽂이, 가톨릭전례음악합창지휘, 커피바리스타(자격증), 컴퓨터활용능력1·2급, 미술심리지도사 2급(기반), 분노조절상담지도사(온라인), 캘리그래피지도사 3급, 한국전통민화(궁중·전통), 디지털사진작가·스마트폰사진작가반, 성악·오르간(개인 레슨), 한국예술가곡교향클래스, 알기쉬운편곡법, 나를찾는글쓰기학교
 곳: 가톨릭대학교(성심) 평생교육원(경기 부천 역곡동)
 문의(접수): 02)2164-6587, 8 / 개강 전까지

서울시립청소년드림센터 이룸학교 신입생 모집

(재)한국천주교살레시오회에서 서울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립청소년드림센터에서 도시형대안학교 이룸학교 신입생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지원 바랍니다 / 문의: 02)2051-9923, 3747 이룸학교
 대상: 14세~24세 학교 밖 청소년
 때: 2월17일(월)~3월5일(목) / 교육과정: 학교 구성원이 민주적 소통 절차를 거쳐 교육과정을 운영, 공동교육과정(비방학습·시민교육·공동체활동 등), 길찾기 교육과정(경험과 체험·탐색과 자립·진학준비 등)

다네이 글방(예수 고난회)

하느님을 향한 책읽기와 글쓰기 / 문의: 010-9503-1127

3월~6월	첫째·셋째주(화) 오후, (수) 오전 둘째·넷째주(금) 19시	회비: 5만원
-------	---------------------------------------	---------

가톨릭대 평생교육원(성의) 자격증 과정 수강생 모집

곳: 성의회관(서초구 반포대로222) / 문의: 02)2258-7739~8
 홈페이지: https://cukcedu.catholic.ac.kr/cukcedu

미술지도사 1급·2급	3월16일~5월25일 매주(월) 10시~12시50분(1~3단계) / 회비: 30만원 상담문의: 010-7154-8275
심리상담사 2급	3월19일~7월16일 매주(목) 주간 10시~13시, 야간 18시~21시 / 회비: 65만원
국제전문자격증 ITC아로마테라피	3월13일~7월24일 금요일 10시~18시, 3월15일~7월26일 일요일 10시~18시 / 회비: 300만원

춘천교구 강원도청소년수련원 여름신앙캠프

일정은 강원도청소년수련원 홈페이지 참조
회비: 초등(6차) 13만5천원, 중·고등(2차) 14만원
 3월9일 9시30분부터 온라인 접수(선착순)
문의: 033)255-6602 청소년활동부

병자들을 위한 꽃동네 치유세미나(꽃동네 기도회)

내용: 미사, 강의, 단담, 고해성사, 치유예절과 안수
대상: 모든 병자와 간호하는 가족들 / **회비:** 5만원
때, 곳: 3월21일(토) 11시~22일(일) 16시, 꽃동네 사랑의 영성원(음성) / **문의:** 010-5490-5345

가톨릭교리신학원 라틴어 초급 수강생 모집

강사: 정환규 신부(가톨릭대학교) / **일괄** 접수
회비: 10만원 / **교재:** 개별 구매(교과과 문의)
때: 3월4일~6월10일 매주(수) 16시15분~17시
문의: 02)747-8501(내선2) 교과과
 홈페이지(cj.catholic.ac.kr) 참조

시스피나음악원 회원 모집 / 문의: 02)363-2258

오전반 (화, 금) 11시	오후반 (화, 수) 19시30분(주1회)
성가반주 오르간 교실	개인 레슨
그레고리오성가지휘법(성주관) 1회 특강	3월14일(토) 10시~12시

예수회센터 영성 강좌(3월 개강)

이 밖의 다양한 강좌에 관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문의(접수): 02)3276-7733(http://center.jesuits.kr)

영신수련 식별규범 이해와 실천적 적용	매주(목) 10시~12시	권오면 신부
행복한 '빨간장' 어떻게 실제로 가능하게 할 수 있는가?	첫째·셋째주 (금) 14시~16시	손엘디, 배가 타리나 부부

성바오로수도회 말씀학교 영성강좌

요한복음 영성강좌	강사: 이창환 신부 / 회비 없음 3월12일(목) 10시~12시30분(미사 포함·14주간), 성바오로 수도회 본원 문의: 010-6293-2060, 02)944-8300
말씀으로 마음치유	문의: 010-6287-9753
바오로시간 영성강좌	회비 없음 / 010-9333-6260 양은철 신부

예수회 후원회 월례특강·금요 침묵 피정

3월 예수회 특강 취소	3월4일(수) 예정이었던 예수회 특강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부득이하게 취소되었습니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양해 부탁드립니다. / 02)3276-7777
금요 침묵 피정	주제: 더 큰 충만함으로 가는 길-회심과 식별 강사: 오세일 신부 / 회비 없음, 미사 봉헌 3월6일(금) 10시~13시, 예수회센터

모집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자원봉사자 모집

대상: 만 59세 이하로 심신이 건강한 분
 3월27일(금)까지 전화 접수 / **문의:** 02)2258-5781, 2

대건챔버파이어 신입단원 모집

대건과 함께할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때: 3월28일(토) 15시 / **문의:** 총무 010-3720-5740
곳: 서초동 / **곡:** 지성곡(다음카페: 대건챔버파이어 참조)

카리타스합창단 정기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1999년 창단된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소속 합창단입니다. / **문의:** 010-7170-9085 단장, 010-2724-0062 총무
연습: 매주(월) 19시30분, 유락사회복지관(신당동) 9층 강당 / **대상:** 55세 미만의 가톨릭 신자 및 예비신자, 전공자 및 남성단원 환영

미사

한국외방선교회 후원회 미사 / **문의:** 02)3673-2525
때, 곳: 3월4일(수) 14시, 명동대성당 문화관 2층 소성당

오순절 평화의 마을 3월 후원회 미사

때: 3월5일(목) 10시(목주, 찬미)·11시(미사, 안수)
곳: 가톨릭회관 1층 강당 / **문의:** 051)782-0765

군중후원회 월례미사 / 문의: 02)776-0457

군중신부 특강 및 군 복무중인 청년과 회원을 위한 미사
때, 곳: 3월2일(월) 14시, 가톨릭회관 7층 강당

젯세마니 첫 목요일 성시간·미사(말씀의 선교 수도회)

대상: '예수성심의 수난과 사랑' 묵상기도를 원하는 신자
때, 곳: 3월5일 19시~22시,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정동) / **문의:** 02)312-7211 선교 사무실

인간

전·진·상 영성심리상담소 / 문의: 02)726-0700

통합영성과 치유훈련 (1년 과정)	3월10일~6월23일 매주(화) 10시~13시
자기인식을 위한 수지예니어그램	3월21일(토) 10시~16시(매일 셋째주 진행) 개인, 가족, 직장, 단체(수시 접수 가능)
성장하는 부모를 위한아주 특별한시간-심리학적 이해와 나눔	4월3일~24일 매주(금) 10시~12시30분(4주 과정)
가계도 그리기와 가족세우기-가족치료	4월8일~6월3일 매주(수) 10시~12시
전문심리상담	가족, 개인, 부부, 불안, 우울, 분노, 공황장애

한마음청소년수련원 위탁피정 모집

대상: 성인단체, 첫영성체, 노인대학
때: 1일, 1박2일 / **문의:** 031)840-0018

볼길 심리상담연구소(마리스타교육수사회)

전문상담: 청소년 문제, 개인, 부부, 가족, 여성
곳: 합정 / **문의(예약):** 010-8981-8356(첫회 무료)

도미니코 수녀원 영성센터 / 문의: 010-5604-1882

전문심리치료: 영적·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부부 및 가족
 치료, 개인(우울·공황·대인기피·강박) 종합심리검사

성결로반외방선교회 면담 고해성사

성사시간: 개인당 최대 30분 / **문의:** 02)953-0613
때, 곳: 매주(수) 13시~20시, 전철 4호선 성신여대입구역 4번 출구(도보 1분) / 예약 필수

가톨릭대학교 상담심리대학원 상담센터

상담 검사: 우울·불안, 성격, 대인관계, 가족, 진로
곳: 서울성모병원 성의회관 / **문의:** 02)2258-7720
상담비: 대학원생 5천원, 전문가 7만원

일원동성당 혼인미사

리모델링한 아름다운 대성전 웨딩과 순백의 소성전 스물웨딩이 가능합니다. / **문의:** 02)2226-2291
 전철 3호선 대청역 2분 거리, 300대 주차
 (토) 12시, (금) 17시(스물웨딩) / www.mylwon.com

사별가족 돌봄 프로그램 '사랑샘'

대상: 사별을 경험한 가족으로 회복의 시기에 도움을 받고자 하는 분들(배우자 사별에 한함)
때: 4월7일~5월26일 매주(화) 14시~17시(8회)
곳: 가락2동성당(송파구 중대로20길 20-1)
문의: 010-9637-1612 신 카타리나

직원모집

강화꽃동네노인요양원 영양보호사 모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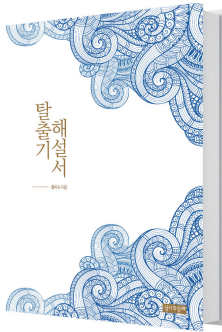
근무 주 40시간, 기숙사 가능 / **문의:** 032)930-8500~3

제기동성당 사무원(계약직) 모집(육아휴직 대체)

대상: 세례받은 지 3년 이상된 교우로 사무행정, 회계 업무, PC(한글·워드·엑셀 등) 사용 가능한 분(본당 사무실 경력자 우대) / **근무기간:** 4월1일~2021년 7월31일
서류: 응시원서(천주교 서울대교구 홈페이지 직원 모집 안내에서 다운로드), 교적 사본, 본당 주임신부님 확인서
1차 서류 전형, 2차 면접(합격자 개별 통보)
 3월15일까지 우편·방문 접수(우 02476, 서울시 동대문구 약령시로 31) / **문의:** 02)921-0131 제기동성당 사무실

수도회 성소모임	때	곳	문의
가르멜 수도회	매월	지역별 장소	010-9986-5680(cafe, daum, net/ wowcarmel)
그리스도의 교육 수녀회	3월7일(토) 12시30분~16시	수련소(평창동)	010-9861-6691
말씀의 선교 수도회	3월7일(토) 14시~17시	수도원(아현동)	02)312-7211 선교 사무실
살레시오 수도회	3월28일(토)~29일(일)	수도원	010-7427-4627
성 베네딕도회 왜관 수도원	매월 둘째주(토) 15시~(일) 13시	본원(경북 왜관)	010-8353-2323
성심수녀회	3월21일(토) 14시~17시	소피기도의집(용산구 원효로)	010-3993-0316 남궁영미 수녀
예수의 성모 여자수도회	둘째주(일) 3월8일 14시	가톨릭회관 207호	010-2910-4825 윤 스텔라수녀
예수회	3월7일(토) 15시30분	예수회센터 이나시오카페	010-9978-9765(vocation, jesuits, kr)
한국외방선교수녀회	3월7일(토) 15시	보문로27길 20	010-9353-1773 노아 수녀

서울주보 '알림'에 게재되는 내용에 대한 책임은 각 신청 단체에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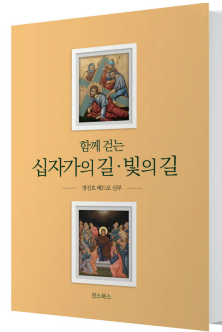


신간

탈출기 해설서

황미숙 지음
성서와 함께 | 336쪽 | 1만7천원
문의: 02)822-0125

이 책은 탈출기의 구조, 내용과 편집의 특성, 주요 주제를 담았다. 제1부는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처지, 그들을 해방할 모세의 소명, 제2부는 광야 생활의 시련과 하느님의 보호, 시나이 계약, 십계명과 계약의 책, 성막 건립과 봉헌 이야기를 다룬다.



신간

함께 걷는
십자가의 길 빛의 길

정진호 지음
인스북스 | 72쪽 | 5천5백원
문의: 02)704-5736

예수님의 수난과 죽음을 기억하고 구원의 신비를 묵상하는 십자가의 길, 부활의 신비를 묵상하는 빛의 길 기도를 바치는 기도서다. 십자가의 길이 빛의 길로써 완성을 이룬다는 점을 강조하며,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무엇인지를 말해준다.



신간

음악은 나의 기도 2

원종철 지음
가톨릭대학교출판부 | 364쪽 | 2만1천원
문의: 02)740-9718

'음악은 나의 기도'의 후속편으로, 가톨릭 사제인 저자가 음악 한 곡 한 곡에 얹힌 자신의 일화와 음악가들의 삶과 음악 이야기를 산책하듯 편안하게 풀어내고 있다. 이 책은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고전 음악 입문서로서 독자에게 소박하고 진솔한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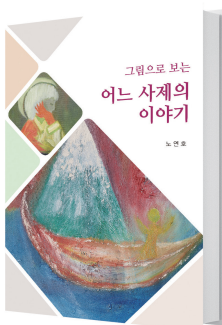


신간

그리스도교 영성 역사
- 근현대편

전영준 지음
가톨릭대학교출판부 | 296쪽 | 1만5천원
문의: 02)740-9718

저자는 2천 년 동안 그리스도인이 살아온 '영성 생활의 역사'에 다양한 측면으로 다가간다. 역사적이고 사상적인 배경을 바탕으로 그 안에서 살았던 주요 영성가의 삶과 영성 신학자의 사상을 살펴보고, 평신도 그리스도인의 전례 생활과 성사 생활뿐 아니라, 수도자의 수도 생활도 함께 살펴본다.



신간

그림으로 보는
어느 사제의 이야기

노연호 지음
기쁜소식 | 136쪽 | 1만원
문의: 02)762-1194

의정부교구 노연호 신부의 사제수품 30주년 기념집으로 직접 그린 그림을 간략한 묵상 글과 함께 엮어 책으로 펴냈다. 그림을 그리면서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는 경험을 했다는 저자는, 그림으로 내면의 어린 시절 상처로 인해 아픔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작은 용기와 희망을 주고 싶다고 말한다.



전시

서소문성지 역사박물관
상설 전시

매주 월요일 휴관
관람시간: 9시30분~17시30분
무료 전시 | 문의: 02)3147-2401

서소문성지 역사박물관의 상설 전시가 개편되어 선보인다. 조선 후기 사상의 흐름 속에서 발화한 시대정신과 서소문 밖 네거리 역사 유적지의 장소성과 역사성을 한눈에 돌아볼 수 있다. 주님의 수난을 바라보며 부활을 기다리는 사순 시기에 보다 뜻깊은 관람이 되길 바란다.

“너희는 가서 ‘내가 바라는 것은 희생 제물이 아니라 자비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워라.”(마태 9,13)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고자 애쓰는

우리 국민들,
세계 곳곳에서
‘코로나 19’로
고통받는 이웃들,
그리고

세상을 떠나신 분들을 위해
하느님의 특별한
은총을 청하며
우리의 사랑하는
어머니 성모님의 전구를
겸손되이 구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사제들과 교형자매 여러분
주님의 평화와 은총을 빕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수난을 묵상하는
사순 시기를 앞두고 우리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이라는 낯선 공포와 불안을 온 사회와 함
께 겪고 있습니다. 먼저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며 애쓰시는 방역
당국자들과 일선 의료진의 형언할 수 없는 수고와 그 가족들의 희
생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분들을 위한 특별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고통 속에 있는 환자들이 하루빨리 건강을 회복하여 가
족의 품으로 돌아가 일상의 삶을 되찾길 기원합니다.

감염과 격리자가 늘어가면서 편견과 배척, 자신만을 위한 이기
적인 행동으로 상처를 주고받는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어
렵고 힘든 때일수록 서로를 배려하고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가 될
수 있어야겠습니다.

지난 2월 22일 각 본당에 전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
나 19) 추가지침’을 본당 신부님을 중심으로 본당 공동체가 아주 성
실하게 이행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부터 확진자가 급격히 늘
어나며 지역의 경계도 무너져버려 정부에서 국가 재난 위기 경보
수준을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로 격상했습니다.

따라서 서울대교구 내 각 본당은 2월 26일 (재의 수요일)부터 3월 10일까지 14일 동안 신자들과 함께 하는 미사를 중지하고 본당 내 회합이나 행사, 외부의 모임도 중단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순절의 시작인 재의 수요일을 재의 예식과 미사 없이 시작한다는 것이 무척 마음 아픈 일이지만, 신자들의 안전과 생명을 우선적으로 생각해 결정했음을 헤아려주시기 바랍니다.

신자들은 재의 수요일을 맞아 기도와 단식, 자선을 통해 그 깊은 메시지를 묵상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례 미사나 혼배미사, 병자성사 등 그 밖의 사목은 본당 신부님의 재량에 맡깁니다. 신부님들은 이 2주 동안 공동체를 기억하며 개인적으로 미사를 봉헌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신자들에게 주일미사 대송 방법을 잘 알려주시고 가톨릭평화방송의 매일미사 시청을 권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와 정치지도자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바쳐주시기 바랍니다. 정치지도자들은 국민들에게 중요한 존재이며, 국가의 중요한 선택을 할 때 국민의 생존과 안정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아야 합니다. 혹시라도 '코로나 19'의 불행한 상황을 정략적이거나 정치적인 도구로 삼으려고 하는 시도는 결코 없어야겠습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자신 각자도 사순절을 맞아 우리의 죄를 묵상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이 특별한 은총의 기간 동안 무관심과 이기심을 넘어,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연민을 가지고 자비와 사랑을 실제로 베풀어야 합니다. 우리가 당분간 본당에서 미사를 봉헌하지 못하지만, 병마와 싸우는 이웃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묵상하며, 기도와 희생 속에 사순 시기를 보내는 것 역시 신앙인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형자매 여러분,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막연한 불안과 공포감에 억눌리지 말고 의연하게 기도와 사랑을 실천하는 가운데 지혜롭고 슬기롭게 위기를 극복해감으로써 주님 부활의 기쁨을 더욱 뜻깊게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겠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고자 애쓰는 우리 국민들, 세계 곳곳에서 '코로나 19'로 고통받는 이웃들, 그리고 세상을 떠나신 분들을 위해 하느님의 특별한 은총을 청하며 우리의 사랑하는 어머니 성모님의 전구를 겸손되이 구합니다.

2020년 2월 25일
서울대교구장 추기경 염수정

염수정